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성격에 대한 고찰

김 태 형*

< 차 >

- I.
- II. 부석사 무량수전 관련자료 검토
- III. 부석사의 창건과 사역
- IV. 무량수전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종교건축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부석사 경내 중심 전각인 금당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무량수전의 내부에 봉안된 무량수불의 위치나 참배객의 진입 동선 등이 여타의 사찰과는 매우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다. 무량수전은 남향의 건물로 통상 금당에 해당하는 대웅전의 경우 그 정면에 불상이 봉안되는 게 관례였다. 그렇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 정면이 아닌 서쪽에 불상이 독존으로 봉안되었고 그 주위에 협시보살 혹은 다른 불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매우 특징이다.

이러한 건물의 특징은 다른 사찰의 금당에서 볼 수 없는 사례로 필자는 경내에서 수습된 ‘강당’명 명문외를 근거로 무량수전 관련 문헌과 강당 관련 금석문을 비롯하여 여러 사료들을 검토, 재해석 한 결과 부석사 무량수전이 금당이 아닌 강당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부석사 사역이 남북 축선상으로만 존재해 있던 것이 아니라

2015년 5월 제4차 문헌과 문물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 부석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분포하고 있음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부석사의 창건기 가람의 규모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대석단을 비롯한 여러 전각과 시설들이 676년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8세기 초 혹은 중반 이전에는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와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중심사역에 해당하는 무량수전을 축으로 하는 공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 부석사는 남북의 축선으로 이어지는 중심사역 외에 동서로 이어지는 암자구역과 별원구역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 부석사 원융국사비를 통해 무량수전 내 불상 봉안 방식이 지엄-의상으로 이어진 화엄일승사상의 구체적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람배치에 대해 11세기 당시에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불교 교리적 논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결국 금당에 해당하는 전각의 필요성에 따라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불좌상들이 있었던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방동 절터에 별도의 금당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서산 보원사지의 보물 제106호 ‘법민국 사탑비’와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통해 강당 성격의 무량수전에서 행해졌던 법회의식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량수전이 교학을 강설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염불과 예경의식 등을 설행하는 실천 수행의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추정하였다.

주제어 : 부석사, 무량수전, 강당, 금당, 의상(義湘)

I. 머리말

18호인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국내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한국고대건축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량수전이 갖고 있는 종교 건축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 없이 금당(金堂)으로서 부석사의 중심 건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다른 고대 사찰의 금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내부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서방정토 아미타불을 지향한 성격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불상을 본존으로 하는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부석사는 무량수전뿐만 아니라 경내와 그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어, 실제 사찰의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일부 조선시대 문집류에 부속 암자들의 위치와 이름 정도가 소개된 정도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만 있어 왔다. 또한 사중(寺中)에는 사적기(寺蹟記)가 남아 있지 않아 부석사를 연구하는 기초자료는 매우 부실한 편이다.

필자는 2013년 부석사박물관 학예사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그간 집적된 각종 문헌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내와 주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여 부석사 역사의 공백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내 및 주변에서 다양한 유물을 수습하고 분석한 결과, 그간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석사의 역사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부분적이거나 일조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출토 유물 중에는 부석사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무량수전’의 종교건축물로서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시도 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부석사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현재의 가람배치 상황만을 두고 그 사상적 바탕을 화엄의 십지(十地) 혹은 정토의 삼배구품(三輩九品)사상 등에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제한된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의 오류로 인해 부석사의 가람 배치를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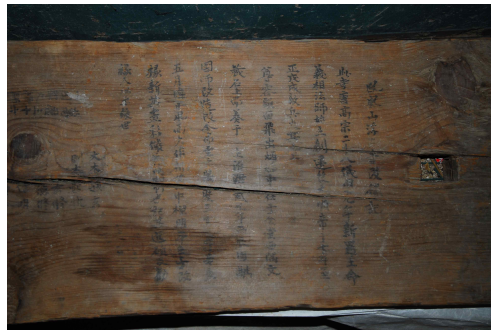
국내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창건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중건 과정이 없이 이어져온 경우는 없다. 거의 전부가 전쟁과 화재, 자연재해, 시대적 원인 등으로 인해 중건 혹은 폐사, 중창을 거듭해왔다. 또한 상당수의 사찰들은

가람의 규모나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중창 불사를 시도 하여 변형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부석사의 경우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초창기 가람의 기본적인 틀이 상당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어 관련 연구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필자는 현장조사와 문헌기록의 재검토 및 출토 유물을 바탕으로 창건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부석사 가람 규모와 무량수전의 성격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II. 부석사 무량수전 관련자료 검토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해 금당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여타의 동시대 금당과는 다른 구조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일반적인 남향의 불단이 아닌 서쪽에 불단이 설치되어 동향(東向)을 하고 있는 본존불, 그리고 좌우의 보처가 없이 독존으로 봉안되었다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도 1. 무량수전내 '봉황산 부석사 개연기'

관련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원융국사비문'에 무량수전을 금당이 아닌 상전(像殿)으로 언급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량수전의 초창 연대에 대해서는 '봉황산 부석사 개연기' 등의 기록에서는 문무왕 16년(676)에 부석사의 창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의 건물은 1358년 병화(兵禍)로 소실된 것을 홍무(洪武) 9년(1376) 원융(圓融)국사가 개조(改造)했다고 하지만 이는 진각국사 원응(眞覺國師 圓應)의 오기(誤記)로 잘 알려져 있다.¹⁾ '개연기'에는 만력(萬曆) 39년(1611) 비바람으로 중량(中樑)이 부러

무량수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부석사 경내에 있는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 원융국사 비문에는 '상전(像殿)'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1611년 작성된 '봉황산 부석사 개연기(鳳凰山 浮石寺 改椽記)'에는 '금당(金堂)'으로 등장한다.

(사진 1) 현재 남아 있는 부석사

1)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등에 실린 '鳳凰山 浮石寺 改椽記'는 그간

이듬해에 수리하였다고 한다. 이후 무량수전은 <표 1>에서와 같이 불상의 개금, 전각의 단청과 번와 등의 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무량수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건축구조에 대한 연구와 가람의 배치에 따른 공간구조 및 성격 등의 연구,²⁷⁾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한 부속 건물들의 성격과 일제강점기 보수 관련 연구 등이 있다.²⁸⁾

이들 연구논문 중 부석사 무량수전의 성격에 대해 강당의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으로는 ‘홍병화, 『9~11세기 중반 부석사 무량수전 영역의 건축계획과 구성 요소』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화엄경』강설의 문답식 진행과 『청택 범보은문(請擇法報恩文)』 중 의상이 평생 서쪽을 등지지 않고 살았다는 일화 등을 들어 그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필자 조사 및 판독. ()안의 글자는 보고서 등에 실린 내용으로 실물 대조를 통해 오자를 바로잡았다. 문단의 구분은 목서의 행 바꾸기를 따랐다.)
此寺唐高宗二十八年儀鳳元年新羅王命 義相法師始立創建後元順帝十七年至 正戊戌敵兵火其堂
 尊容頭面飛出烟焰中在于金堂西隅文 藏石上而奏于上泊洪武九年丙辰圓融 國師改造改金而至于
 萬曆三十九年辛亥 五月晦日風雨大作柝其中樑明年(□)壬子改 椽新其畫彩儼若旧制也記其匠
 碩及勸 緣(綠)人以示後世(也).

이외에 개연기에는 별도의 목서가 있는데 ‘萬曆三十六年己酉○金○諭(기유년은 1609년) 一國
 都大禪師 ○玟 大施主 王德○ 化主 印峯 ○○○.....’이라 하여, 1611년 風雨로 무량수전이 피해를 입기 전에 이미 다른 보수공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연기 본문 뒤에는 ‘大木
 妙玄 副木 熙悅...’등 시주자와 공사 참가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²⁷⁾ 윤범모, 『浮石寺의 창건과 가람배치』, 『동국사상』9, 동국대학교 불교학회, 1976. 金東賢, 『浮石寺 無量壽殿과 祖師堂』, 『佛敎美術』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7. 김덕문, 『浮石寺 無量壽殿의 建築의 構成要素 解析』, 충북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8. 조성산, 『韓國 傳統 木造建築物의 構造解析에 관한 研究 : 浮石寺 無量壽殿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진원·황지은, 『한국전통건축 목구조의 분석과 자료 모델링에 관한 연구 : 부석사 무량수전 평주 공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8-2, 대한건축학회, 2002.; 李基善, 『한국 금당의 평면구성과 예불공간 한국 금당의 평면구성과 예불공간 : 요잡(纒匝)과 요도(繞道)의 개념을 중심으로』, 『文化史學』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김도경, 『수치분석을 통한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과 단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30-5, 대한건축학회, 2014. 차주환, 『중국 明代 이전 건축과 浮石寺 無量壽殿 轉角部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30-5, 대한건축학회, 2014.
- ²⁸⁾ 한재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원형보전을 위한 수리기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8-9, 대한건축학회, 2002. 조현정, 『韓國 建造物 文化財 保存史에 關한 研究 : 1910년 이후 수리된 목조건조물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재국, 『일제강점기 고려시대 건축물 보존 연구』, 홍익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7. 박재락, 『韓國寺刹의 配置와 立地에 대한 風水地理의 分析 : 화엄계 사찰과 구산선문계 사찰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기철, 『취원루를 통해 본 영주 부석사 건축공간의 변천』, 『건축역사연구』20-3, 건축역사연구학회, 2011. 홍병화, 『9~11세기 중반 부석사 무량수전 영역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선종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관계의 변화와 부석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27, 대한건축학회, 2011.

표 1. 부석사 무량수전 창건 및 중수 연표.

	내용	출전	비고
676년	부석사 창건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1358년	兵禍로 무량수전 소실	鳳凰山 浮石寺 改椽記(이하 改椽記)	부석사 소장 자료
1372년~1376년	무량수전 등 중수	眞覺國師 碑銘, 改椽記	
1611년 ~1612년	무량수전 중수 및 단청	改椽記	
1618년	무량수전 수미단 보수 혹은 조성	無量壽殿 須彌壇上 寶蓋 背面板 墨書	
1656년	무량수전 지붕 개와	무량수전 지붕 막새기와	부석사 소장 자료
1709년, 1713년	무량수전 등 改瓦	명문 암막새	//
1723년	무량수전 아미타불 개금	無量壽殿佛像改金記	
1767년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1773년	경내 전각에 대한 대대적인 改瓦	改瓦記	
1802년, 1806년	무량수전 등 중수	無量壽殿 安養樓 重修記,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	
1916년~1919년	무량수전, 조사당 해체수리	小川敬吉 소장 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Ⅲ. 부석사의 창건과 사역

1. 부석사의 창건

통일신라 직후인 문무왕 16년(676)에 왕명으로 창건하였다는 사실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비롯해 많은 문헌과 부석사 내 전각의 중수기 등의 자료를 통해서 밝혀져 있다.

부석사의 초창연대에 대해서는 사료에 의거해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석단이나 무량수전 등의 가람이 의상의 생전에 이루어 졌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9세기 중창설이 우세하다.

9세기 중창 설에 대한 근거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송고승전』등에서 의상과 문무왕의 일화를 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문무왕이 앞서 여러 성과 장창 등을 중수하는 등 다수의 국가적 토목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681년 다시 왕경에 성을 쌓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상이 이를 만류했다는 기사와 문무왕이 장전과 노비를 하사하자 『열반경』의 여덟 가지 부정한 재물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송고승전』의 내용을 들어로 의상이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등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대가람의 건립이 없이 작은 초막들이 있는 정도였을 것이라는 견해다.⁴⁾

여기에 의상이 태백산 대로방에서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강경한 것과 제자 지통의 태백산 미리암굴에서의 수행, 진정과 그의 돌아가신 모친을 위한 90일간 추동(錐洞)에서 강의한 예를 들며, 당시의 부석사는 현재의 조사당을 중심으로 한 몇 채의 건물이 전부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헌기록의 내용이 의상의 청빈한 삶과 부석사의 창건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왕명으로 부석사의 창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앞서의 기록에서 밝혀진 바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보다는 후대의 일이지만 현재 부석사의 대석단 조성과 초창기 가람규모와 관련해서는 김대성의 경주 불국사 중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불국사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천보 10년(751)에 짓기 시작하여 대력 9년(774)에 김대성이 죽자 이를 나라에서 완성시켰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불국사의

4) ‘貧道以法界爲家。以孟耕待稔。法身慧命藉此而生矣’

5) 위, 『빛깔 있는 책-부석사』, 대원사, 2008, 10~15쪽.

20여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석축을 조성하고 불전(佛殿)과 탑을 만드는 등 대역사가 완공되고 나서야 유가교(瑜珈敎)의 고승 향마(降魔)를 청해 이 절에 거주하게 했고 이를 계승해 지금에 이른다고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국사의 예로 볼 때 부석사의 경우 676년경부터 창건을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의상이 제자들을 데리고 경전을 강설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자들 또한 매일 같이 돌을 깨는 망치와 정 소리, 기타 공사로 인한 소음이 북적이는 곳에서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은 불국사 중건 공사를 마치고 고승 향마를 거주케 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眞定師 孝善雙美)’조에 보면 의상과 제자들은 추동에 가서 초가를 짓고 『화엄경』을 90일 동안 강의했다고 한다. 왜 의상은 부석사 현재의 터를 두고 추동까지 가서 강의를 해야 했는가라는 문제다. 현재 부석사의 공간 규모로 볼 때 충분히 3천의 제자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추동까지 가서 별도로 초가를 짓고 『화엄경』을 강의했다는 것은 당시 부석사에서 그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당시 의상이 머물고 있던 부석사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의상이 태백산 즉 현재의 부석사 주변에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을 지도한 것은 당시 부석사에 대가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지 청빈한 삶과 연계시켜 초창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의상의 청빈한 삶이 현재와 같은 대석단을 갖춘 부석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도 『송고승전』의 ‘빈도(의상)는 법계를 집으로 삼아 발우로 밭을 갈아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법신의 지혜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라는 구절을 두고 부석사의 초창 규모를 소규모 암자 형태로 추정하고 있다.

발우로 밭을 간다는 것은 수행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곡식이 익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은 뒷 구절과 연계되어 성불도(成佛道)를 이루겠다는 내용으로 재물을 축적하여 사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점을 의상이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⁷

이와 함께 『삼국유사』 ‘양지사석(良志使錫)’조에 양지가 선덕왕(善德王)에 의해 창건된 영묘사 장육상을 만들 때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날라다 주었다는 기사는 비록 왕실의 불사였지만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

⁶⁷ 『』 ‘勝詮鬪鬪’조에서는 현수법사가 『探玄記』등을 의상에게 전하면서 앞서 新羅僧 ‘孝忠’이 金 9分을 의상의 이름으로 전달했다는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선묘용과 부석의 설화다. 이 설화를 증명하는 유물로 무량수전 앞 뜰 지하의 석룡(石龍)과 부석(浮石)이 전해오고 있다. 『고승전』에서는 부석사 터를 선점했던 권종이부 세력이 선묘용의 신이(神異)로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으나 이들이 이후 의상의 감화를 입어 그의 문하로 들어와 부석사 창건에 힘을 보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부석사와 의상과 관련된 선묘용과 부석, 선비화 설화의 모티브는 또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송고승전』에서 언급한 『열반경』이다. 『대반열반경』 권제16의 「범행품」과 『대당서역기』에서는 5백 강도의 성불고사(成佛古事)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살상과 약탈을 일삼던 500명의 도적들이 파사익왕의 군대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는 처벌을 받고 깊은 산중으로 쫓겨났다가 석가여래의 가피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는 내용과 사위성의 득안림(得眼林)의 유래를 들며 당시 눈 먼 도둑들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숲을 이루었다고 한다.⁷⁾

이 내용을 부석사 창건 연기 설화 등과 연관 지으면 ① 도적과 권종이부(權宗異部)의 세력 500명, ② 파사익왕의 군대와 선묘용의 신이, ③ 500명의 도적과 권종이부 세력의 추방 ④ 도적들의 지팡이와 선비화로 연결된다는 점도 선묘용의 신이로 쫓겨난 권종이부 세력이 부석사 창건에 일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창건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寺域

현재 부석사와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유구와 유물로 보아 부석사의 사역은 현재보다 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부석사 관련 자료 중 조선 후기에 쓰인 『재향지(梓鄉誌)』에서는 당시의 부석사 사역에 대해 현재의 천왕문에서 시작하여 무량수전과 조사당, 자인당, 응진전으로 이어지는 중심축과 자인당 서쪽의 암자구역, 그리고 조사당 동쪽의 부속건물지역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현재의 부석사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와초방(瓦草坊), 은신암(隱神菴), 극락암(極樂菴), 영은암(靈隱菴), 내원암(內院菴) 등의 암자 터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쪽에는 동전(東殿)과 부도밭 아래에서 유구에서 확인된 명문외편을 통해 대장당(大藏堂), 대봉지원(大鳳之院)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동쪽에서도 몇 곳의 대규모 건물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도판 1)

⁷⁾ 玄奘 / 권덕주 역, 『대당서역기』, 우리출판사, 1994, 168쪽.



도판 1. 부석사 가람 배치 추정도(Daum 지도 사진)

부석사 중심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역 중 동쪽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원융국사 비각과 동부도발 사이의 계곡이 있는데 이곳은 『재향지』에 등장하는 동전이 있었던 곳이다. 동전은 약사전으로도 불렸으며, 현재 자인당 내 중앙에 봉안된 보물 제1636호 석조여래좌상의 원소재지이다. 이 전각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무량수전 내 보관 중인 소형 목조탁자에 목서명이 있어 1689년에 단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 말까지 이곳의 지명이 ‘약사골’이라고 불려졌다.⁹⁾(도 2-1, 2)



도 2-1. 부석사 자인당에 봉안된 보물 제1636호 석조여래좌상



도 2-2. 무량수전내 소형 불탁의 목서

8) 목서명 : 順興 浮石寺 藥師殿獨辦 成造丹青 功德主宗志 畫員瑛玘 靈雲 印峇 供養主 晴晴 康熙 貳拾八年 己巳 閏三月 畢功於四月 晁晃明也(사진 2-2 참조)

9) 林泉, 『고고미술』2(7) 통권 12호, 한국미술사학회, 1961. 124~125쪽.

있던 곳의 아래에 지금은 과수원으로 경작되는 곳에서도 건물지가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명문 와편이 발견되었는데 ①대장당(大藏堂) ②중희○○대봉지원조 중희○○(重熙○○大鳳之院造 重熙)○○ 등이다. 이 명문와편을 통해 이곳에 대장경판을 보관했던 ‘대장당’과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건물인 ‘대봉지원’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도 3, 4)



도 3. '大藏堂'명 와편 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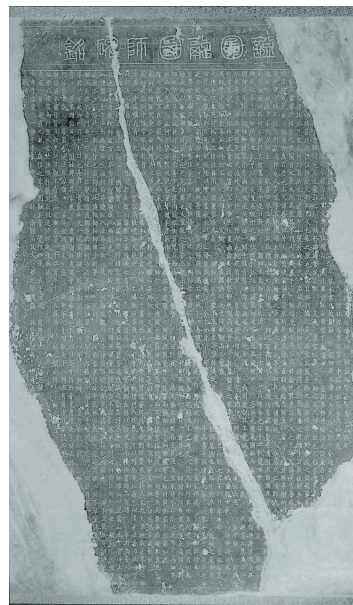


도 4. '重熙...大鳳之院..'명 와편 탐본

‘대봉지원’ 명문와편에는 거란의 연호인 ‘중희(1032~1055)’가 확인되어 11세기에 새로 건립되었거나 중수된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봉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응국 사비문 말미에 ‘수비원(守碑院)’을 든다는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된 건물로도 추정된다.¹⁰⁾ (도 5)

이 건물지는 동서 150m, 남북 50m 규모로 현재 이곳에는 토기와 청자, 백자편을 비롯한 다수의 와편이 산재해 있고 초석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 동쪽의 산 너머에 또 다른 건물지가 확인된다. 과수원으로 개간된 이곳은 남북 약 300m, 동서 약 200m의 사역이 확인되는데 상층의 사역은 현재 부석사 자인당에 봉안된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이 있었던 곳이다.¹¹⁾ 방동절터라 불리는 이곳은 최근까지 방형 초석



도 5.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 부석사 원응국사비 탐본

¹⁰⁾ ‘...守碑院重大師洪首賢緊大師...’

¹¹⁾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78번지.



도 6. 경북 영주시 북지리 178번지 일대 절터에서 확인된 초석



도 7. 부석사 자인당 서쪽에 있는 은신암터 전경

나타난다. 이 암자는 1970년대까지 존속해오다가 70년대 말 정부의 산중 독가촌(獨家村)철거 방침에 따라 사라져 지금은 축대와 우물터 등이 남아 있다. 암자의 규모는 남북 20m, 동서 50m 가량으로 추정된다.(도 7.)

또한 현재의 경내 설법전 서쪽으로 약 1km가량에 이르는 구간에는 다수의 건물지와 와편, 자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전성기 부석사의 산내 암자 및 부속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대석 등이 있었으나 2014년 4월 과수원 정지작업을 하면서 거의 모두 유실되었다.(사진 6)

그러나 2014년 4월 동양대박물관 주관으로 이곳을 시굴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석탑 상륜부와 다량의 와편, 청자향로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¹²⁾ 이 절터에서는 ‘천장방’ 명문와편이 다수 확인되었지만,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동쪽의 사역은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700m가량 동쪽으로 더 가면 경북유형문화재 제 154호 오전리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또 다른 절터가 확인된다.

다시 부석사 무량수전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현재 자인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은신암터가

IV. 무량수전의 성격

1. 문헌과 경전을 통해 본 무량수전의 성격

부석사는 676년 창건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가람의 확장 및 축소가 있었지

¹²⁾ 공고 제 2014 - 330호, 조사기관:동양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기간: 2014. 04. 09. ~ 2014. 04. 14.

현재 사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단으로 구성된 대석단(大石壇)은 창건 당시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위에 지어진 건물들의 변화들이 보인다.¹³⁾

현재 무량수전은 1358년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1376년 중수되었는데 이때의 중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건물만의 개보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단부를 포함한 전면 보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기단과 전각 내 본존불 좌대 주변의 녹유전 등으로 볼 때 기단부까지의 전면적인 보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부석사의 여러 전각과 시설에 대한 보수와 도량정비 공사가 있었지만 경내의 전면적 혹은 부분적인 발굴조사는 없었다. 특히 경내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도 이렇다할만한 사전 지표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구에 대한 현상은 전혀 알 수 없다.¹⁴⁾

이런 가운데 필자는 무량수전 주변에서 다수의 암막새, 수막새 등의 외편과 청자 및 백자편 등을 다수 수습하였다. 이 중 무량수전 뒤 경사지 등에서 ‘강당(講堂)’명 명문외편을 수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무량수전의 ‘강당’설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도 8)



도 8. ‘講堂’명 외편 탐본

무량수전과 강당과 관련된 기록으로 『삼국유사』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달달박박(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조에 광덕(廣德) 2년(764) 7월 15일에 백월산 남사(南寺)가 완공되자 소조미륵존상을 만들어 금당(金堂)에 모시고 액자를 ‘현신성도미륵지전(現身成道彌勒之殿)’이라 했고 또 소조아미타불상을 만들어 講堂에 모셨는데 그 액자에 ‘현신성도무량수전(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했다.¹⁵⁾ 이는 ‘강당’명 명문외편과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¹³⁾ 구역에는 19세기 초까지 취원루, 응향각 등이 있었지만 이후 취원루가 사라지고 응향각이 안양문 아래로 내려오는 변화가 있었다.

¹⁴⁾ 진홍섭, 『신라북악태백산유적조사보고』3, 『한국문화연구원 논총』3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0.;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회전문 건립부지 문화유적 유구확인조사 보고서」, 한빛문화재연구원, 2010. 지금까지 부석사 경내에서 실시된 발굴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첫 번째는 1916년 무량수전과 조사당 해체 복원시 무량수전 주변에 대한 약식 조사와 1967년 신라오악조사단에 의한 石龍을 확인하기 위한 시굴 조사가 있었다. 이외에 2010년 6월부터 7월 까지 현재의 중무소 앞 회전문 건립 부지에 대한 문화유적 유구확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¹⁵⁾ 『삼국유사』卷第三 塔像第四, ‘廣德二年甲辰七月十五日寺成. 更塑彌勒尊像安於金堂. 額曰現身

국보 제81, 82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조상기(造像記) 명문에 따르면 김지성이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상종의 기본이 되는 논소이므로 금당에는 법상종의 주존인 미륵상을, 강당에는 아미타상이 봉안되었을 것¹⁶⁶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미타불을 강당에 봉안하는 데는 경전의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3세기 중반 조위(曹魏)의 강승개(康僧鎧)가 번역한 『불설무량수경』에

“ 여러 성문과 보살들 그리고 일체의 대중들을 위하여 법문을 설할 때에는 모두 다 칠보강당에 모이게 하여 성불하는 가르침을 자세히 말씀하시며 미묘한 진리를 밝히시느니라.”¹⁷⁷

무량수불 즉 아미타불이 여러 성문과 보살들을 위하여 법문을 설하는 장소가 칠보로 장엄된 ‘강당’이라는 점이다. 특히 무량수전 본존좌대 주변의 녹유전과 관련하여 유리로 바닥이 된 극락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보다는 무량수불이 설법하는 칠보로 장엄된 강당을 표현하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골문이 시문된 고려시대의 이 ‘강당’명 명문외편을 통해 무량수전이 강당으로 건립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지만, 과연 무량수전이 삼국시대 불교전래 이후 건립된 가람의 금당 뒤 강당과 같은 講說의 장소로 사용되었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당시 강당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물이나 문헌이 빈약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와 엔닌(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의 기록을 통해 그 사례를 추정할 수 있다

‘법인국사탑비’에는 “내가 보원사에 있을 때, 삼본(三本) 화엄경을 봉지(奉持)하고, 날마다 중야(中夜)에 불상을 모신 상전에서 경행(經行)하기를 몇 년을 계속하였다.”¹⁸⁸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상전(像殿)’이 금당을 말하는지, 강당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경행’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¹⁸⁹ 그러나 이 탑비에서 말하는 ‘상전’이 강당일 가능성이 있

成道彌勒之殿。又塑彌陀像安於講堂。餘液不足。塗浴未周。故彌陀像亦有斑駁之痕。額曰現身成道無量壽佛；‘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恒朴朴’ 現身成佛은 義相의 『화엄경 문답』에서 『孔目章』에 등장하는 寶莊嚴童子 등 세 사람의 현신성불 내용과도 유사하다. 특히 『삼국유사』에서도 이 기사의 말미에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도 현신성불의 사상적 토대가 『화엄경』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¹⁶⁶ 최성은·안장현, 『석불, 돌에 새긴 정도의 꿈』, 한길아트, 2003, 124쪽.

¹⁷⁷ ‘無量壽佛。爲諸聲聞菩薩大衆演宣法時。都悉集會七寶講堂。廣宣道教演暢妙法…’

¹⁸⁸ 법인국사 보승탑비, ‘…吾在普願寺奉持三本華嚴經每以中夜經行像殿不絕數年…’

¹⁸⁹ 經行에 대해 참선 후 실시하는 포행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예가 있지만 法印國師塔碑에서

.20) 이는 『대비구삼천위의경』에 경행하기 좋은 장소 5곳을 꼽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강당 앞이다.²¹⁾ 물론 ‘강당전(講堂前)’이라 하여 강당 외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비문에서와 같이 한 밤중 홀로 진행되는 경행의 경우 이처럼 실내에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양주 개원사(楊州 開元寺) 강당에서 ‘국기지일(國忌之日)’의 재를 봉행한 공간이 강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법회 진행과정을 보면 법인국사(法印國師)가 보원사에서 행했던 것과 유사한 의식이 확인된다. 즉 참가 대중들이 동서로 나뉘어 염불을 하며 강당을 도는 의식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의상의 저작으로 알려진 ‘의상화상투사례(義湘和尚投師禮)’는 무량수전의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통일신라시대의 금당구조는 내부에서의 예경의식(禮敬儀式) 등을 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요잡(纒匝)’과 같은 참배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투사례’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의 조석예불문(朝夕禮佛文)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어 寺內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예경의식을 봉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비문에서 언급된 상전에서 행해진 經行 등의 예로 볼 때 무량수전과 같은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그 안에 불상을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투사례’의 ‘사(師)’는 통상적인 스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아본사 석가모니불(是我本師 釋迦牟尼佛)’, ‘극락도사 아미타불(極樂導師 阿彌陀佛)’과 같이 불보(佛寶)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량수전에서의 법회의식은 염불과 예경의식이 설행(設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황룡사 금당이나 기타 동시기 사찰의 금당이 본존과 협시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 또한 강당에서의 법회의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무량수전이 부석사 금당이 아닌 강당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금당의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는가라는 점이다. 사찰의 중심 건물인 금당이 없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일로 작은 암자와 같이 법당과 요사를 겸하는 예를 제외하고는 금당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사찰의 존

염불과 거리를 독송을 걸어 다니며 하는 ‘街衢經行’의 예도 있다.

20) 부석사 원응국사비문에서도 무량수전을 像殿이라고 한 예가 있어 강당을 像殿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大崇福寺碑(896년) ‘…慧遠同期於西境捨爲像殿經臺…’ 朗慧和尚白月葆光之塔碑(890년) ‘…公卿守宰之歸仰像殿影堂之開 …’, 奉先弘慶寺碣記(1026년) ‘…像殿經樓麗異…’와 같은 사례도 있다.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21) 『大比丘三千威儀經』, 閑處, 戶前, 講堂前, 塔下, 閣下の 5處.

이유를 증거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금당이 없이 강당만 존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용국사비문에서 국사의 제자가 언급한 질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국사의 제자는 스승에게 “무량수전(像殿)에는 오직 아미타불 불상만 조성되어 있고 補處보살도 없으며 그 앞에 영탑(影塔)도 또한 왜 없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원용국사는 “일승(一乘)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시방정토(十方淨土)로써 테(體)를 삼아 생멸상(生滅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이르기를,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로부터 관정(灌頂)과 수기(授記)를 받은 이가 법계(法界)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보처(補處)와 보결(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까닭에 결시(闕時)가 없으므로 좌우보처상을 모시지 않았으며 영탑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화엄일승(華嚴一乘)의 종지(宗旨)를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

이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독존(獨尊)의 아미타불상은 의상이 부석사 창건과 더불어 무량수전을 조성할 당시부터 봉안되었으며, 다른 사찰의 불상 봉안 사례나 가람배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비문을 다시 살펴보면 7세기후반 이후 원용국사 재세시(在世時)까지 사찰의 가람 배치는 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더불어 금당 안에 본존을 비롯한 협시보살들이 봉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석사의 경우 이런 예와는 달리 금당이라 여긴 무량수전 앞에는 탑도 없고, 법당 안에는 본존상만 독존으로 모셔져 있음을 당시에도 매우 의아해 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다.

현재 부석사 중심사역의 가람배치는 지엄-의상으로 이어진 화엄일승사상의 구체적 산물로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전통은 원용국사에게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역의 가람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남아 있는 유물과 유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부석사 중심사역의 가람배치에 대한 보완으로 보물 제220호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2구의 출토지를 언급할 수 있다.(사진 9-1, 2)

이곳에서는 ‘천장방(天長房)’이라는 명문와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곳으로 보물 제220호 석불좌상 2구 외에 경북유형문화재 제130호 쌍탑이 있었던 곳이다. 1958년 11월 조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살펴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지에 석불 3구가 있었으며, 3층 쌍탑은 이 석불들의 서남쪽에 치우쳐져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²³(도 10, 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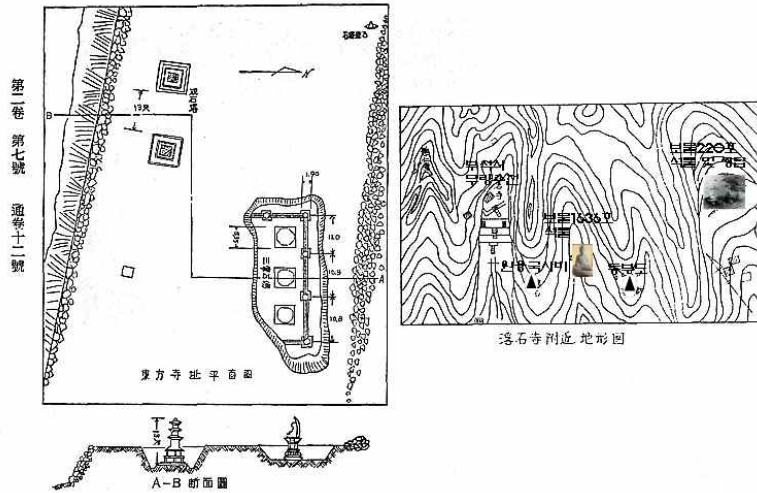


도 9-1, 2. 부석사 자인당에 봉안된 보물 제220호 석조여래좌상



도 10. 부석사 자인당으로 이전하기 전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의 모습(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

22) 林泉 『榮州 浮石寺 東方寺址 調査』, 『고고미술』2(7) 통권 12호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小川敬吉' 자료 사진에는 모두 3구의 석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언급된 東方寺址는 실제 사찰 이름이 아닌 동쪽에 위치한 절터라고 이해해야한다. 지역에서는 이곳을 '方(房)洞'이라 부른다. 사진 10의 오른쪽 끝에 破佛은 현재 부석사 중무소 앞 화단에 다른 석조 유물들과 함께 남아 있다.



도판 2. 보물 제220호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의 부석사 자인당 이안 당시 조사 약도 (林泉, 『榮州 浮石寺 東方寺址의 調査』, 『고고미술』2(7) 통권 12호)

보물 제220호 석불좌상들이 있었던 공간은 부석사 중심사역에 배치할 수 없었던 금당을 별도의 공간에 조성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부석사 중심사역에서 금당이 존재해야 할 공간에 무량수전이 강당의 성격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대신할 방안으로 보물 제220호 석불좌상이 봉안되었 곳을 금당으로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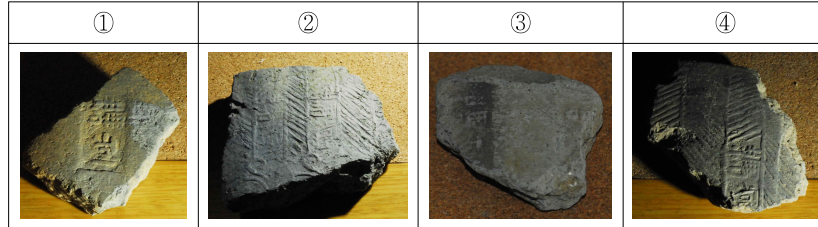
2. 무량수전 성격의 고고학적 접근

부석사 경내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명문외편 중 ‘강당(講堂)’명 외편은 지금까지 알려진 부석사 경내 전각 중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물을 지칭하는 자료다. 현재 경내에서 출토된 ‘강당’명 외편 모두 4점으로 <표 2, 3>에서와 같이 무량수전 주변에서 3점 그 이외의 장소에서 1점이 확인되었다.

표 2. ‘講堂’명 외편 출토현황(단위 : cm)

장소	크기(가로×세로×두께) (유물번호)	타날문양	비고
무량수전 뒤 경사지	①5.4×8.5×1.8(부석-190)	명문 주변 斜線문	- 명문 구획 크기: 가로 2×세로 5
보물 제249호 삼층석탑 주변	②10.5×11×2(부석-231)	명문 주변 斜線문 및 어골문	
	③8×7×1.8(부석-267)	미확인	
지장전 북면 경사지	④9×10.5×2(부석-192)	명문 주변 斜線문 및 어골문	

표 3. '강당'명 명문외편 사진



‘ 명 외편은 부석사에 현재 남아 있는 현판, 중수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각종 시문헌이나 『재향지』등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건물에 사용된 기와로 보인다. 이 외편은 어골문 사이에 장방형의 공간을 두고 ‘강당’이라는 두 글자만이 있으며, 발견 장소가 주로 무량수전 주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강당’명 명문 외편의 발견은 무량수전의 성격과 기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삼국유사』와 『불설무량수경』등을 통해 볼 때 무량수전이 단순한 참배의 공간만이 아닌 강당의 기능을 추구함에 따라 전각 내 불상의 서쪽 배치 등의 원인이 명백해진다. 무량수전의 경우 법사에 의한 강설이 주목적이 아닌 실천적 수행 공간의 개념이 강하다고 본다.

원용국사비에서 관정과 수기를 받은 이가 법계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보처와 보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무량수전 내부의 공간성에 교리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형이 남아 있는 전통사찰 금당의 계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전통사찰의 대웅전, 극락전 등 사찰의 중심 당우의 진입 공간으로 설정된 건물의 정면 계단에서도 부석사 무량수전이 금당이 아닌 강당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한다.

통상 금당에 해당하는 당우들의 정면 진입계단이 1개소로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전북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내소사 대웅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개성 관음사 대웅전, 강원도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김



도 11. 국보 제15호 경북 안동 봉정사 극락전



도 12. 국보 제290호 경남 양산 통도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대적광전, 평북 영변 보현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대웅전·극락전 등이 있다.(도 11)

다만 정면에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좌우로 1개 혹은 2개의 계단이 마련된 경우로 예산 수덕사, 강화 전등사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계단 중앙에 답도(踏道)를 두어 2~4

칸으로 구분한 법주사 대웅보전, 통도사 대웅전 등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도 12)

그러나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계단을 3개로 분리하여 조성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강당에 해당했던 경주 불국사 무설전(無說殿)은 4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익산 미륵사지 강당지, 부여 정림사지 강당지 등에서는 부석사와 마찬가지로 3개의 계단시설이 확인된다.<표 4>, (사진 13-1, 2)

표 4. 금당과 강당의 진입 계단 현황

	사찰명	금당계단 수	강당 계단수	비고(강당)
1	익산 미륵사지	전후방 각 1	전방 3, 후방 1	.
2	부여 정림사지	.	전방 3	정면 7間
3	경주 불국사	사방 각 1	전방 4	정면 8間
4	경주 감은사지	사방 각 1	전방 2	정면 8間
5	경주 황룡사지	미상	미상	정면 9間



도 13-1. 경북 경주 불국사 무설전



도 13-2. 충남 부여 정림사지 강당

함께 무량수전의 배치와 관련하여 백제의 가람배치와 연관되는 점이 주목된다. <표 3>에서와 같이 경주 불국사와 감은사지의 강당지 계단과 건물 칸수가 짝수라는 점과 미륵사지와 정림사지의 경우 계단이 3개라는 점은 부석사 무량수전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신라의 강당 중 황룡사 강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강당지의 칸수가 모두 짝수지만 백제의 경우 강당지의 칸수가 모두 홀수라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예외적으로 경주 황룡사 강당지가 9칸으로 홀수 인데 이는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조에 이 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공장 ‘아비지(阿非知)’를 초청하여 그 일을 주관케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석사 무량수전이 강당이라는 근거로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백제와 신라의 가람 배치에 있어서 강당 좌우에 부속 건물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이는 부석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까지 무량수전 좌우에 취원루와 응향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도 14)



도 14. 1910년대 무량수전 해체 복원 직후의 전경. 사진 우측에 응향각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

특히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는 양주 개원사 강당에서 ‘국기지일’의 재를 지낼 때 양주절도사 이상공(李相公)과 장군이 강당 앞에 이르러서 동서로 나뉘어 각각 동막(東幕)과 서막(西幕)에 들어가 신발을 고쳐 신고 손을 씻은 뒤 동쪽 다리와 서쪽 다리로 강당의 중문(中門)에서 만났다는 내용에서 강당 좌우에 임시 장막을 설치했다는 것 또한 강당 좌우의 부속 전각과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다.²³⁾

V. 맺음말

부석사와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중심사역에 해당하는 무량수전을 축으로 하는 공간에 대해 집중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 부석사는 남북의 축선으

²³⁾ 『入唐求法巡禮行記』 ‘…講堂前磚砌下相公將軍東西別去 相公行人入東幕裏 將軍西行入西幕 下俄頃改鞋澡手出來 殿前有二砌橋相公就東橋登 將軍就西橋登曲 各東西來會 堂中門就座…’

이어지는 중심사역 외에 동서로 이어지는 암자구역과 별원구역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이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석사의 창건기 가람의 규모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대석단을 비롯한 여러 전각과 시설들이 676년경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8세기 초 혹은 중반 이전에는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삼국유사』 등 관련 사료에 대한 재해석 통해서도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무량수전과 관련하여 금당보다는 강당임을 출토된 명문와편과 관련 사료 등을 분석하여 이를 결론지었다. 특히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 부석사 원용국사 비에서 언급된 무량수전 관련 기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11세기 당시에도 부석사 경내 가람배치와 무량수전 내 불상 봉안 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비문에서는 지엄-의상으로 이어진 화엄일승사상의 구체적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람배치에 대해 11세기 당시에도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불교 교리적 논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결국 금당에 해당하는 전각의 필요성에 따라 보물 제220호 영주 복지리 석불좌상들이 있었던 영주시 부석면 복지리 방동 절터에 별도의 금당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에서 출토된 ‘강당’명 명문와편의 존재는 무량수전이 강당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로 현재까지 발굴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에서 확인된 강당 유구를 통해 무량수전이 강당의 성격을 가진 건물로 보았다. 특히 『삼국유사』, 『불설무량수경』 등을 통해서도 무량수전이 강당에 해당하는 건물임을 단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서산 보원사지의 보물 제106호 ‘법인국사탑비’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등의 기록을 통해 강당 성격의 무량수전에서 행해졌던 범회의식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량수전이 교학을 강설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염불과 예경의식 등을 실행하는 실천적 수행의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를 통해 무량수전이 백제계 사찰의 강당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 부분은 향후 고고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보충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투고일 2015년 7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9일 ■

참고문헌

< >

『三國遺事』
『三國史記』
『大般涅槃經』
『宋高僧傳』
『佛說無量壽經』
『華嚴經 普賢行願品』
『大比丘三千威儀經』
『梓鄉誌』

<국내>

임천, 「榮州 浮石寺 東方寺址의 調査」, 『고고미술』2(7) 통권 12호, 한국미술사학회, 1961.

윤범모, 「浮石寺의 창건과 가람배치」, 『동국사상』9, 불교학회, 1976.

 , 「浮石寺 無量壽殿과 祖師堂」, 『佛敎美術』3, 동국대박물관, 1977.

진홍섭, 「신라북악대백산유적조사보고」3, 『한국문화연구원 논총』3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0.

김덕문, 「浮石寺 無量壽殿의 建築的 構成要素 解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신복룡 역(圓仁 著), 『入唐求法巡禮行記』, 정신세계사, 1991.

국립문화재연구소, 『小川敬吉 조사 문화재 자료』, 1994.

권덕주 역(玄奘 著), 『대당서역기』, 우리출판사, 1994.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초고』, 대원사, 1999.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 2002.

조성산, 「韓國 傳統 木造建築物의 構造解析에 관한 研究 : 浮石寺 無量壽殿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진원·황지은, 「한국전통건축 목구조의 분석과 자료 모델링에 관한 연구 : 부석사 무량수전 평주 공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8-2, 대한건축학회, 2002.

한재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원형보전을 위한 수리기록에 관한 연구」, 『대

- 논문집』18-9, 대한건축학회, 2002.
- 강우방·곽동석·민병찬, 『불교조각』Ⅱ, 솔출판사, 2003.
- 최성은·안장현, 『석불 등에 새긴 정도의 꿈』, 한길아트, 2003.
- 조현정, 「韓國 建造物 文化財 保存史에 關한 研究 : 1910년 이후 수리된 목조건조물을 중심으로」, 명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 「일제강점기 고려시대 건축물 보존 연구」, 홍익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기선, 「한국 금당의 평면구성과 예불공간 한국 금당의 평면구성과 예불공간 : 요잡(繞匝)과 요도(繞道)의 개념을 중심으로」, 『文化史學』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 김보현 외, 『빛깔 있는 책-부석사』, 대원사, 2008.
- 박재락, 「韓國寺刹의 配置와 立地에 對한 風水地理的 分析 : 화엄계 사찰과 구산선문계 사찰을 중심으로」,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빛문화재연구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회전문 건립부지 문화유적 유구 확인조사 보고서』, 2010.
- 영주시청·(주)환경문화재보존,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안전진단 및 기록보존 실사용역보고서』, 2011.
- 정기철, 「취원루를 통해 본 영주 부석사 건축공간의 변천」, 『건축역사연구』20-3, 건축역사연구학회, 2011.
- 최연식 율김(均如 著), 『一乘法界圖圓通記』,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홍병화, 「9~11세기 중반 부석사 무량수전 영역의 건축계획과 구성요소 : 선종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관계의 변화와 부석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27-9, 대한건축학회, 2011.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고대사지비교연구』3 강당지·승방지·부속건물지·문지·회랑지편, 2012.
- 유홍준, 『한국미술사 강의』2, (주)놀와, 2012.
- 의장 강의/지통 記/김상현 교감번역, 『화엄경문답』, 씨아이알, 2013.
- 김도경, 「수치분석을 통한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과 단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30-5, 2014.
- 차주환, 「중국 明代 이전 건축과 浮石寺 無量壽殿 轉角部 구조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30-5, 대한건축학회, 2014.
- 저자 未詳/해주 역, 『法界圖記叢髓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 >

東寺寶物館, 『東寺の 建造物』, 1997.

<인터넷>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 of Muryangsujeon Hall of Buseoksa-Yeongju

Kim, Tae-Hyung

Muryangsujeon Hall of Buseoksa-Yeongju, which is National Treasure #18, has been widely known as Korea's best wooden structure, but considered a Buddha Hall inside Buseoksa Temple in terms of its character as a religious structure.

However, the position of Amitabha enshrined inside Muryangsujeon (無量壽殿:Amitabha hall) or the traffic of worshippers are ver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emples. Muryangsujeon is facing south and in case of Daewoongjeon, which is usually the Buddha Hall, the Buddhist statue was generally enshrined at the front. In case of Muryangsujeon of Buseoksa Temple, the Buddhist statue is enshrined to the west without any bodhisattvas or other statues, making it very unusual.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are not found in other Buddha Halls of other temples. Therefore, I have focused on the tiles engraved with 'Lecture hall' and compared them with the related literature and engravings related to lecture halls to review and reinterpret various historical resources. As a result, I have come to argue that Muryangsujeon of Buseoksa Temple is a lecture hall, not a Buddha Hall.

Along with this, it has been verified through a field study that the current boundary of Buseoksa was not just on a longitudinal axis, but also on a latitudinal axis. Unlike what has been suggested in regards to the scale of Buseoksa at the foundation, it seems that most of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such as 'Massive stone walls' were built from around 676 to complete the view of a Big Temple before the early or mid 8th Century.

Any studies related to Buseoksa Temple were concentrated on the

spaces around Muryangsujeon, which is the central structure. As a result of my stud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Buseoksa Temple has an hermitage zone and a another temple zone that lead from east to west in addition to the central zone on the longitudinal axis.

In particular, based on the Stele for State Receptor Oneyung(圓融:964~1053) in Buseoksa Temple, which is Gyeongbuk Intangible Cultural Asset #127, it was emphasized that the enshrinement of Buddhist statues in Muryangsujeon is a specific product of Huayan Yana(華嚴一乘) succeeded from Chi Yan (602-668) to Uisang (625-702). It was assum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raised and debates in regards to the layout of the temple back in the 11th Century. As a Buddha Hall was needed a separate hall could have been built at the temple site in Bang-dong Bukji-ri Buseok-myeon Yeongju-si with the stone seated Buddhs of Bukji-ri Yeongju-si, which is Treasure #220.

In regards to the functions of Muryangsujeon of Buseoksa Temple, the records of Stele for State Receptor Beopin(法印:900~975) of Bowonsa Temple Site, Seosan, which is Treasure #106 and Ennin's 『Ennin and the Tang Patrol』 showed an aspect a Buddhist ritual that was performed at Muryangsujeon, which was a lecture hall. Therefore, it has been assumed that Muryangsujeon is not a place for lectures, but a place for practical training including Buddhist prayers and worshipping rituals.

Key Words : Buseoksa Temple, Muryangsujeon, Geumdang(金堂),
Gangdang(講堂), Uisang(義湘)

